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심포지엄**

사회복지를 넘어
 통합적 사회적 책임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사례 발표

2008. 10. 6
 조제호 팀장




The Market for Virtue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 2000년대 이전까지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이윤창출 등의 경제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2000년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자선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통합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 즉,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 등의 다원적인 변화의 요구에 보다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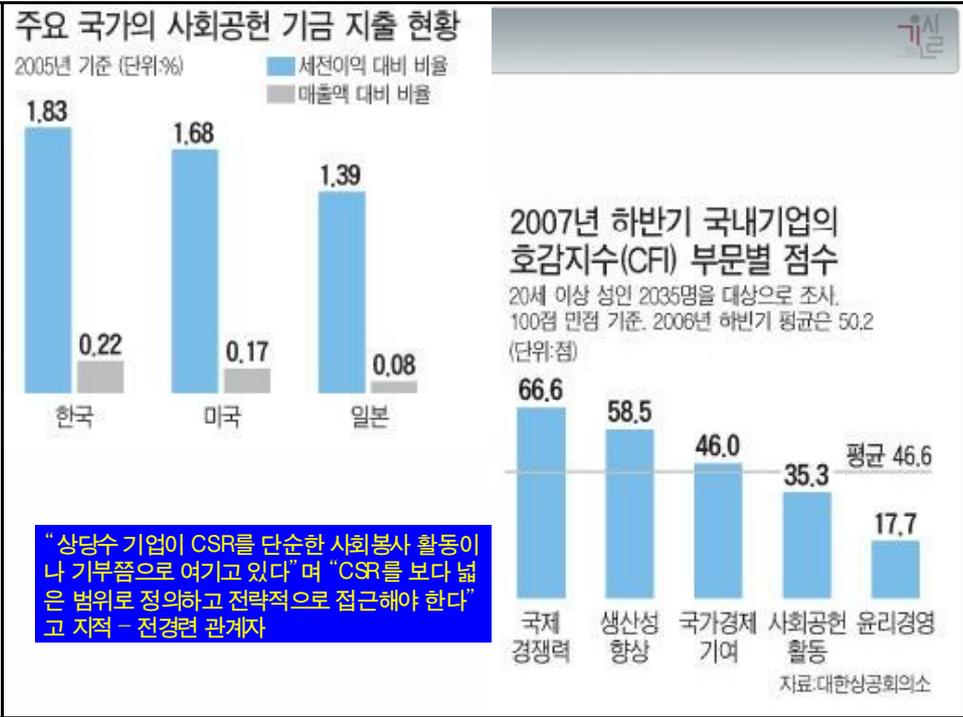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 **지난 40년간 100개사 중 현재 33개사만이 살아남았다(포춘)**
- **기업의 재무 성과는 회계 보고서를 통해 주주와 공유된다.**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경영자는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회적 성과**는 기업 내부에 공공 숨겨져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선진기업들은 그 사회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지속가능경영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UN Global Compact
(기업의 10대 사회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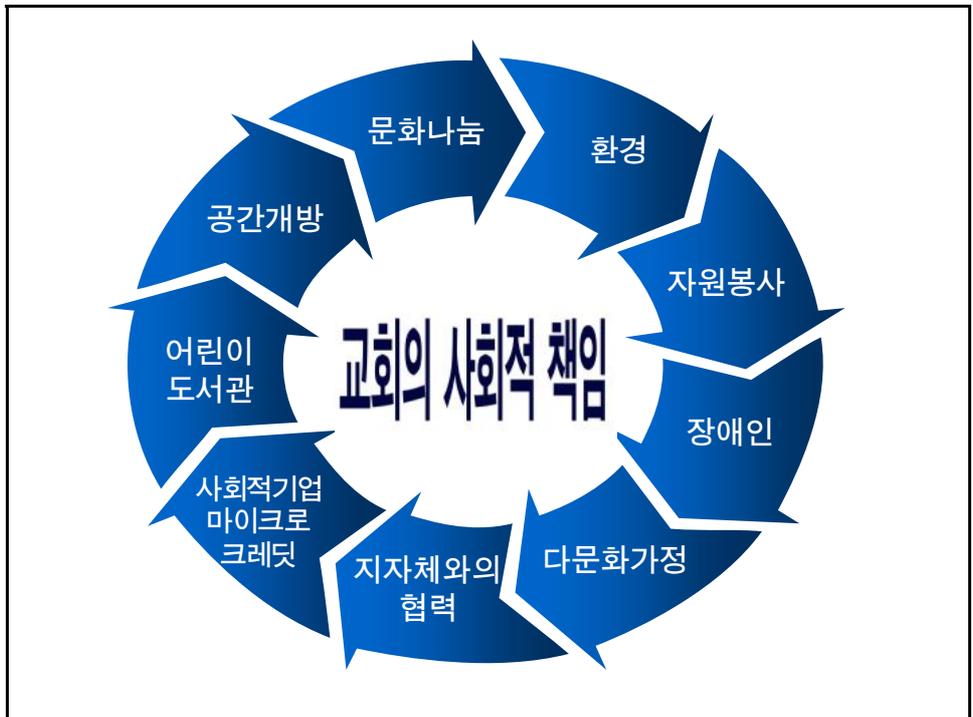
ISO 26000
(기업, 정부, 노조, 비영리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책임 국제규격)

OECD 다국적기업 지침
(노동, 환경, 조세 등에 관한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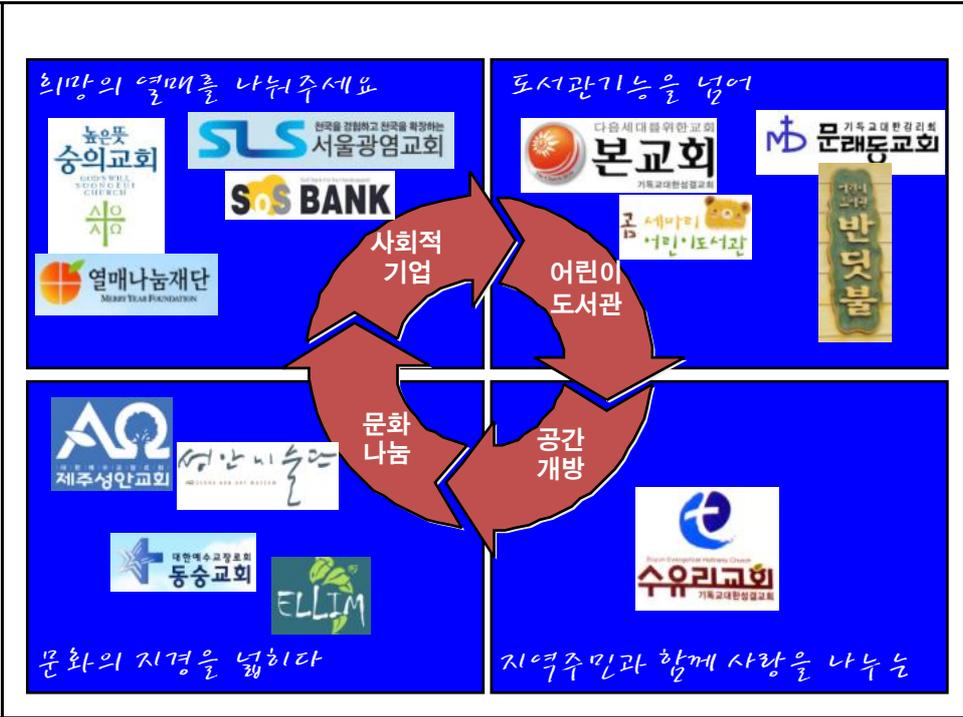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사회책임투자(SRI)를 위한 지수 중 가장 권위가 있음)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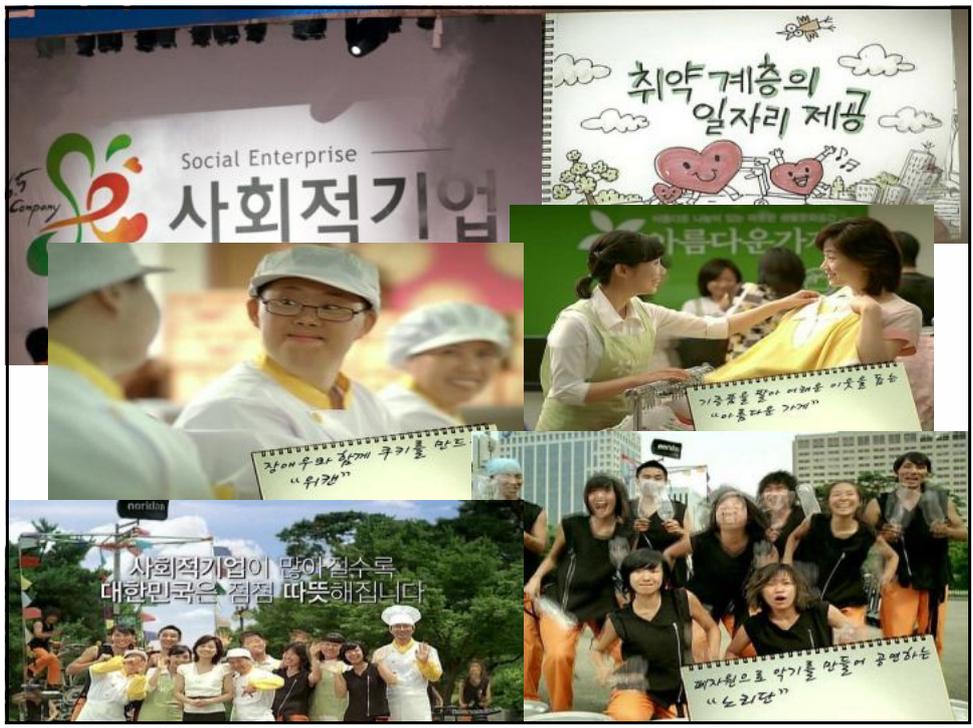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또는 사회적 목적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라는 용어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 하는 동시에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며,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새 시대의 나눔 :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열매나눔재단

MERRY YEAR FOUNDATION

HOME | LOG IN | SITEMAP | INTRANET | JOIN

[사업소개](#) | [후원참여](#) | [21c 나눔을말한다](#) | [게시판](#) | [자료실](#)
BUSINESS | SUPPORT | 21c VOLUNTEER | BOARD | DATA ROOM

"새로운 나눔의 시작"

우리의 열매는 희망을 주는 나눔의 씨앗입니다.
나눔을 통한 기쁨과 희망으로 기쁨의 해를 만들어 갑니다.

인사말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문제로 발생하는 절대빈곤층 확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의에 대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시교자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결국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것을 저희는 **희년이라 정의합니다.** 열매나눔재단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 사랑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

2003년 **밀천나눔공동체 발족을 통해 시작** 되었으며, 그해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공모사업을 시행했으며 2007년 7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열매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까지 확대하여 사역을 진행.

사진갤러리

News Center | [1월 겨울 이야기](#) | 2008-06-16

[열매나눔 뉴스레터 신청](#)
 열매나눔의 소식을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 메자닌 열매나눔 박스공장

- 네트워크를 통하여 튼튼한 기반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감.
- 공장은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새터민 및 저소득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재단은 이들에게 직업/자립/정착 교육을 제공
- 공장은 기업과 연계하여 박스를 납품하는 판로를 확보하고 운영을 지원
- 열매나눔 박스공장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나눔실천과 이익창출을 동시에 원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탈북자와 일반 한국출신 근로자가 같이 일하면서 상생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여 명의 탈북자가 일하고 있는데, 40명까지 확대할 예정



기업 보건복지가족부 통일부 노동부 NGO

인건비 보조 / 기술이전 / 허칭

아이템개발 기업납품
신규판로개척 기업협력제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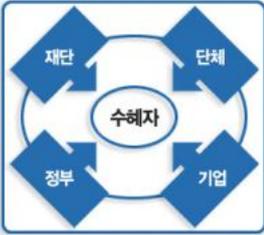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3. 씨앗은행

200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4개의 희망씨앗터(씨앗은행 자금으로 세워진 창업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외 쪽방탈출 전세자금 용자 및 응급 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재단	→	사업비 지원 창업교육 사업지원관련 서비스 지원
단체	→	교육지원 사업기반마련 지원
기업	→	사회적 인식개선 책임실현 연구지원
정부	→	안전비 및 사업비 지원 지역내 시장형성 지원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1. 설립동기
청각장애인 한 명이 노점상을 하다 적발되어 나온 벌금 7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놓고 고민을 하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기사를 보고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5만 달러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서울광영교회에서 5천만원을 더해 1억원의 기금으로 시작.

2. 지원대상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으로 한정해서 지원.

3. 대출조건 : 위기상황에서만 대출이 가능.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 일반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불가.

4. 대출금액 : 한 가정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

5. 신청과 대출절차
장애인을 섬기는 목회자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추천과 대출 신청.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방문을 통해 실사 후 대출결정

6. 대출 심사기준 : 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가족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대출



어린이 도서관

문화나눔, 사회적 기업, 공간개방

도서관 기능을 넘어 아동교육센터 지역문화교실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본교회** 기독교대한성령교회
기독교대한성령교회 **문래동교회** 문래동교회
곰 세마리 어린이도서관
반딧불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가베학교
가베학교는 3년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시키는

꿈세마리도서관
꿈세마리도서관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일 테마를 정해서 추천도서

꿈터지역아동센터
본교회는 맞벌이부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꿈터지역아동센터를 개관하고, 빈곤층, 소극을 지원하고

1946년 7월 시작된 본교회는 돈암동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의 담임목사인 조영진 목사가 부임한 후 2006년부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본교회로 교회이름을 변경하였다.
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 라는 사명선언 아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중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으로, 2000여권은 영어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8000여점 영상자료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공세마리 어린이도서관

다음 세대를 위한 본 교회

공세마리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빠를, 엄마를, 아기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
공세마리 도서관을 모뎀합니다.
즐거운 여는 현상속에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세마리 안내 공세마리 자료 공세마리 프로그램 책 이야기 공세마리 문의 본 교회 바로가기 →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 MORE

공세마리 어린이 도서관에서 알려드리는 새소식입니다

- [소식] 공세마리에서 해리포터 영어원서를 체험하세요! [2008-10-02]
- [공지] 추석명절 공세마리 일정입니다! [2008-09-09]

운영시간 오시는길 프로그램

공세마리 운영시간 공세마리 오시는길 공세마리 프로그램

2006년 9월 개관
한글도서 약 5500권과 영어도서 약 2500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약 600명의 어린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40권, 월 평균 1050권이 대출되고 있음.
등록 어린이의 80%는 본교회 출석 아이들이 아닌 지역주민.

도서검색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아동교육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매월 교회 회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

곰세마리도서관 4월의 이모저모

4월 4일 오후 3시
4월 11일 오후 3시
4월 18일 오후 3시
4월 25일 오후 3시

월간일정 Schedule

2008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English Storytelling 1시	6	7 -English Storytelling 3시	8	9	10	11 -체험학습 10시	
12	13	14 -English Storytelling 3시	15	16	17 -논술마트 3시	18	
19 -English Storytelling 1시	20	21 -English Storytelling 3시	22 -메이킹북 3시	23	24 -논술마트 3시	25	
26 -English Storytelling 1시	27	28 -English Storytelling 3시	29 -메이킹북 3시	30	31		



(어린이)
화장실
REST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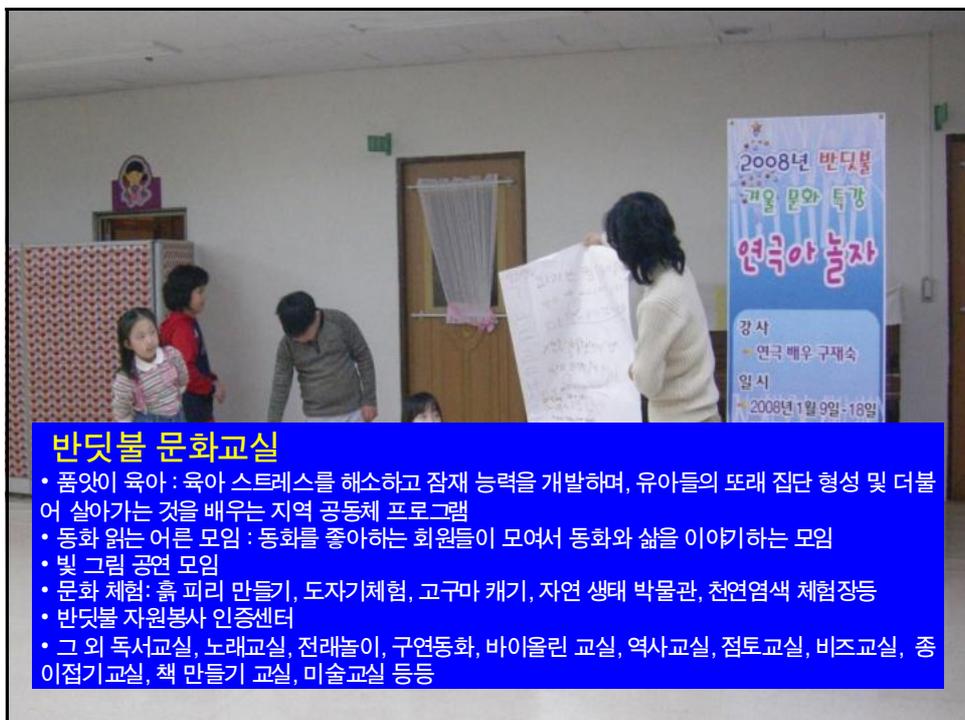
사회사무위원회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004년 1월 개관
 약 7,000여권의 장서를 보유
 2004년 12월 영등포구 사립 문고1호로 설립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



반딧불 문화교실

- 품앗이 육아 :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며, 유아들의 또래 집단 형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 동화 읽는 어른 모임 : 동화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동화와 삶을 이야기하는 모임
- 빛 그림 공연 모임
- 문화 체험: 흙 피리 만들기, 도자기체험, 고구마 캐기, 자연 생태 박물관, 천연염색 체험장등
- 반딧불 자원봉사 인증센터
- 그 외 독서교실, 노래교실, 전래놀이, 구연동화, 바이올린 교실, 역사교실, 점토교실, 비즈교실, 종이접기교실, 책 만들기 교실, 미술교실 등등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사회적 기업

문화나눔

공간개방

지역주민과 사랑을 나누는 도심속의 영성의 샘

수유리교회
Suyuri Evangelical Holiness Church
기독교대한성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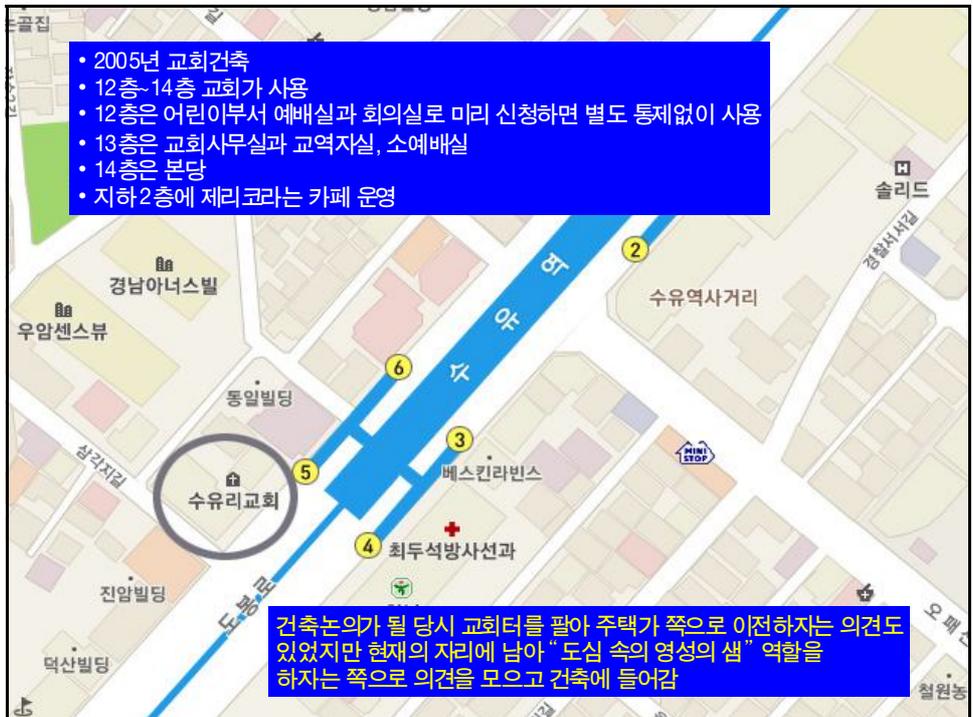
83

- 강북구청여성합창단
- 동화읽는어머니모임
- 강북구청 문화센터 수화교실
- 도봉구 열린사회시민회의
- 강북구청 어린이집 졸업식 및 발표회
- 서울지역 학교 사회복지사 모임
- 미래에셋 설명회
- 녹색삶 법인출범식
- 도봉시민회의 인문대학 강좌
-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회의
- 지역과 경제의대화 강북주민연대

어디에서 모임을 할까?

84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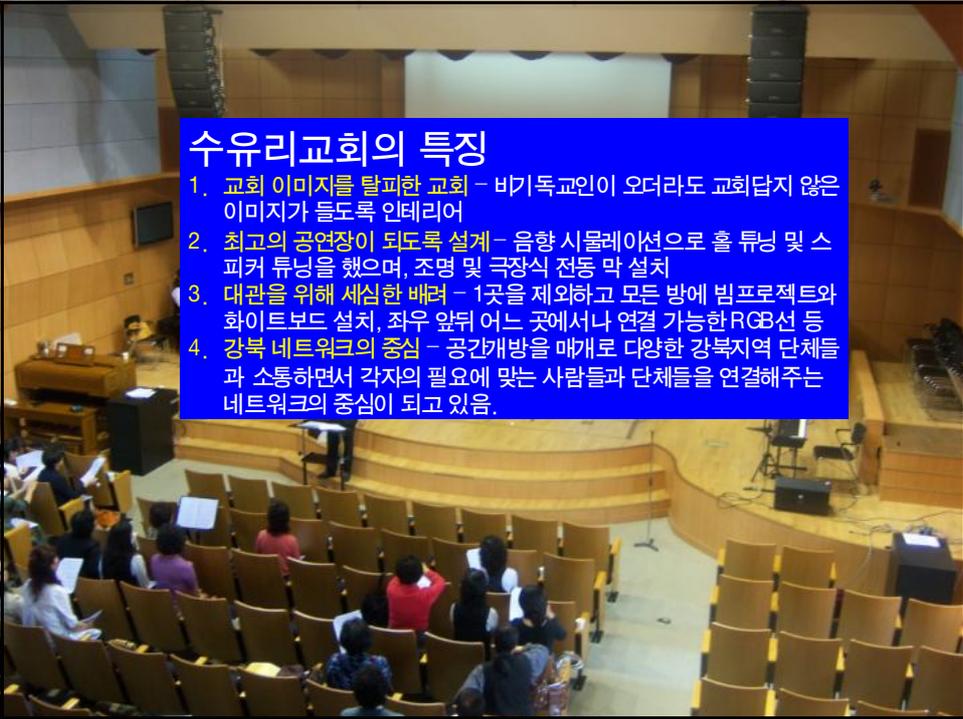


13층
 • 기독교인과 기독교모임에서 주로 사용
 • 기도실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도록 해서 수유리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눈치보지 않고 기도하도록 배려



14층 - 본당(300석)
 • 각종 기독교콘서트와 인근 어린이집 공연 등이 이루어짐
 • 개방을 염두에 두고 최고의 음향기기, 조명, 전동 막 설치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인교회
합성목사님의 주일설교방송!
Sermon Broadcasting
제주CBS FM 93.3 수요일 새벽 05:30
제주국동방송 AM 1596 대주일 새벽 04:00~04:50

제93회 대인예수교장로의 중회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

새소식	최신글들	교회주보	새가족
. 은혜로운 찬양(5)	[성안 게시판]	송경수	08-10-03
. 하나님은 나의 보호막 <?>	[성안 게시판]	김성순	08-10-03
. 단거선교 동역자들	[해외단거선교]	오경숙	08-10-03
. 성안 공동체 사역 뒤편면 공지!!!	[성안 게시판]	임은숙	08-10-03
. 추억의 은혜 찬양(1)	[성안 게시판]	송경수	08-10-02
. 은혜로운 찬양(4)	[성안 게시판]	송경수	08-10-02

믿음의 성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기풍 목사
1868. 11. 21. - 1942. 6. 20.
Rev. Ki-pung Lee (Nov. 21, 1868 - June 20, 1942)

李基豐牧師
宣啟紀念碑

조성예수교장로의 창립 중회를 마치고

이기풍목사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개척할 수 없었던 한가로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여 은혜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1908년 2월 1일 이기풍 목사가 세명의 신자들과 함께 향교골에서 기도회 시작(제주 최초의 교회)
- 장로교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통합축 중회 개최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현재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교회 부설 미술관으로 1년에 정기전시2회, 기획전 2회, 특별전 1회 등 연 5회 이상 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서각 등 현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명작가분들의 작품과 옛선조들의 서예, 그림 및 목기, 유물 등 250여점을 보유
- 지역 유치원의 그림 전시회 또는 소장 작가, 졸업전시회 등에 하루 실비 2,000원(전기료)을 받고 대관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2007년 6월 하얀 자화상의 공연장면
- 2007년 7월 오즈의 마법사
- 장화신은 고양이
- 2008년 7월 "느릅나무 그들의 욕망" / 극단 성좌 정기 공연
- 부스리기 사랑나눔회를 돕기 위한 '소망의 바다'
- 부활절 뮤지컬 <PETER>
- 연극 <빈방 있습니까?>
- 문화행동 아트리의 뮤지컬 <버스>
- 극단 말죽거리의 <화이트 프로포즈>
-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축제
- 기독교영화제

어디에서 공연을 했을까?



나무
소개
영성과문화
문화이야기
기독교 문화행사
찾아오시는길
엘림
에프

엘림 소개
신설안내
공연일정/소개
갤러리
대관문의



리 천정이 높고 넓은 객석 및
갖추고 있다.
공연장소로 선호도가 높으며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노란 기독교화관, 내인노화관 등 기독교 관련 단체 및 건물들이 근접해 있어 교계
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건물 특성상 세미나, 강의, 발표회, 공연 등 다양한 형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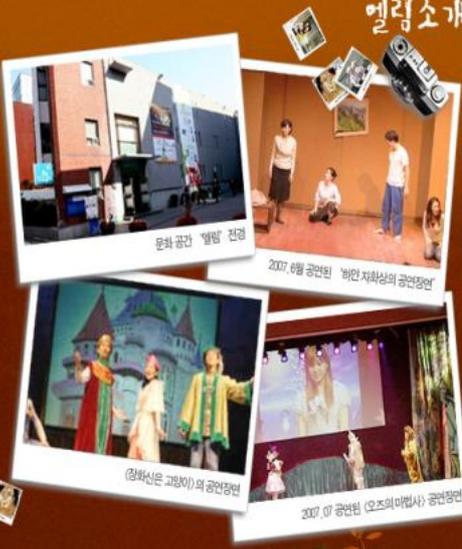
바로 옆 동승교회 1층에는 쾌적한 공간과 고급스런 맛으로 이름난 커피숍 "에프"
가 있어서 찾는 이들이 공연 전후 티스를 나눌수 있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
이다.

가능한 행사 유형으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집기 전후 기독교 문화행사, 교육적
이고 계몽적인 작품의 상설 공연, 선교원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아동극, 지역주민들을 위한 집회, 발표 공간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문화
공간이다.

문화 공간 "엘림"은 이제 서서히 대학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이 우리에게는 추후 미비점을 보완
하여 명실공히 대학로 최고의 공연장으로, 그리고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엘림 소개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1952년 창립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을 문화1번지 대학로와 동고동락하며 문화사역의 주춧돌을 마련한 동송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콘셉트로 시도한 것이 엘림의 시작이다.
 • 대학로에만도 무대 공연장이 수백곳인데, 자선공연을 하거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공연을 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데, 동송교회의 엘림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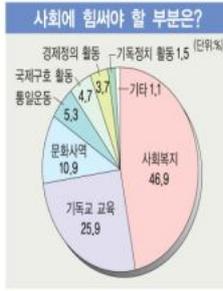
“신행일치·예배회복 가장 시급한 과제”

국민일보-한목협, 목회자·성도 1500명 설문
 2명 중 1명 “나눔·섬김 통한 사회활동 힘써야”

‘신행(信行)일치와 예배 회복.’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목협)가 지난날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목회자와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에서 제시된 한국교회 선결과제다. 한 미디어 ‘크리스천의 기본’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또 크리스천 2명 중 1명은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회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 성도 70% 정도는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7.5%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중박 응답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부덕한 행실’(41.1%)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과 함께 신행 일치를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기독교를 병자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39%), ‘교단과 교파가 너무 많아서’(34.7%),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28.8%) 등 교회의 몰락·세속주의도 개신교의 호감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 교회 내부의 중점과제는 무엇일까. 중

복응답을 허용한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의 62.3%가 ‘예배 회복’이라고 답했다.
 한목협 정병화 목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배에 대한 교육·훈련도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의 대외적인 과제로는 ‘나눔과 섬김’에 관심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46.9%)와 ‘국제 구호활동’(4.7%)을 꼽은 비율이 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도 눈에 띈다. 한국교회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40~7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1순위로 모두 목회자(38.8~48.2%)를 지목했다. 하지만 20대는 자신(45.4%), 30대는 일반 성도(24.2%)를 1순위로 선택했다.



교회의 대외적 과제에 대해서는 60대 응답자 중 62.0%가 사회복지를 가장 힘써야 할 사역으로 꼽았지만 20대는 절반(31.9%) 수준에 불과했다. 그 대신 문화사역(19.1%)과 통일운동(15.0%) 분야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재찬 기자 jeep@kmb.co.kr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6 국민일보
기독교뉴스
2008년 6월 17일 화요일 (제5993호)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절실

한목협 수련회에서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 제시

“춧볼시위 앞에서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이 문제 앞에 목회자들은 뚝 부러지는 대답을 내리기 힘들다. 절대가치의 붕괴와 기독교 안티세력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시민사회가 내민 복잡한 ‘병정식’은 한국 교회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손인웅 목사)가 해답을 찾아 나섰다.

한목협은 16~17일 사랑의교회 안성수

은 이른다.

임 교수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주요 요인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와 편견, 이웃·공동체 섬김의 사명 망각, 반지성적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기독교인은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만민제사장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



변동하는 한국사회와 목회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16일 사랑의교회 안성수영관에서 수련회를 갖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위상을 구축해야 할지를 점검했다. 강민석 기자

섬김의 사명 명심- 공동체善 추구해야

신학·신앙보다 신뢰의 문제에 신경을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갖고 변화하는 시대 속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공공신학과 바른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하는 ‘공공신학’=임성민 장

문에 그분의 주권적 질서 밖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신앙과 경제, 정치, 문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뢰회복이 우선’=지형은 성락

등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규 감신대 교수는 갈보리교회 새들백교회 등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독립교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열린 사고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라고 주장했다.

예정환 소속 선교사로 파리와에서 21년간 활동해 온 임성의 목사는



본 자료는 10월 6일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